

【특집 I :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양계 사료산업 전망



강 상 식

중앙축산사료(주) 품질관리 이사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혁신의 대명사인 스티브 잡스가 영면(永眠)의 길을 떠났다. 그가 남긴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와 뉴턴의 사과에 버금갈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온 세계가 그가 살아온 도전과 혁신의 삶을 애도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항상 갈구하고, 우직하라”고 한 말이 그는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항상 갈구하고 우직하게 나아가 잡스의 사과처럼 인류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수입개방 및 규모화에 따른 질병 증가, 환경오염 등 수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타산업 못지않게 비교적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올해 초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파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과 손실을 감수하였으며, 그러한 실패의 교훈은 튼튼한 축산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식량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들의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동물성 식품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세계 기상이변에 의한 불안정한 곡물생산 등은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우리의 정부정책 역시 중장기적으로 식품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사료곡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그리스에서 촉발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선진국의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의 영향으로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한치 앞의 경제상황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세계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내수경기 역시 부진에서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사료 산업 또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육계 사육 및 사료 생산량 전망

지난 상반기에는 가축질병으로 인해 사육 마리수의 감소 및 돼지고기 대체 소비에 힘입어 육계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닭고기 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국내 생산량까지 증가하면서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이

가 매우 큰 육계시장을 형성하였다.

<표 1>의 대한양계협회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동향을 보면 2011년 8월 육용종계 입식마리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한 73만 마리였으나,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입식마리수의 영향으로 종계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670만 마리로 추정된다.

<표 2>의 농업관측센터 육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에 의하면 내년 3월 까지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1.7~8.8% 높게 나타났으며, 1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5.0%, 12월은 8.8%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육계 배합사료 시장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고환율에 따른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육계사료산업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동향

(단위 : 만마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32	53	57	55	43	34	57	66	59	59	42	28
2010년	36	56	69	65	50	40	58	83	71	61	46	34
2011년	21	43	72	73	68	46	55	73	71	62		
평년	32	52	57	48	42	37	58	64	56	44	34	28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 2> 육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구 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11 / 2012년 (A)	121.4	128.9	131.0	122.8	119.1	121.9
2010 / 2011년 (B)	115.8	122.8	120.6	114.7	114.3	119.9
증감율(A/B)	4.9	5.0	8.8	7.1	4.2	1.7

주 : 육용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계산하였으며, 2010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 농업관측센터

<표 3> 계열업체 닭고기 냉동 비축현황 (2011.9.11기준)

(단위 : 만마리)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11년	252	45	259	254	810
2010년	106	37	232	47	422
증감율(%)	138.2	20.6	11.5	446.2	91.9

자료 : 한국계육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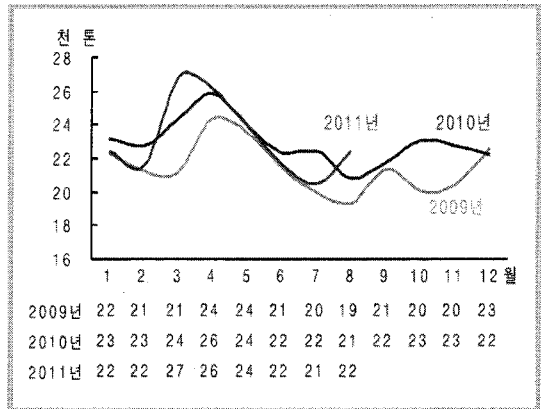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육계 사육마리수의 증가 영향으로 11월 도계마리수는 전년 동월대비 8.8% 증가한 6,178만 마리, 12월은 6,732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계육협회 자료에 의하면 <표 3>에서와 같이 닭고기 공급량 역시 상반기의 지나친 수입물량의 증가와 최근 소비가 둔화되면서 9월 11일 기준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91.9% 증가한 810만 마리였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때 향후 육계시장은 산란에 가담한 종계 급증과 재고누적으로 당분간 공급량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을 보면 2011년 상반기 종계 입식마리수의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면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22,447톤을 기록하였다<그림 1>.

종계입식량의 증가에 의한 육계병아리 잠재 생산력의 증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닭고기 수입의 감소 등으로 육계사료 생산량은 향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그림 1>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산란계 사육 및 사료 생산량 전망

연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종계 17만수 이상을 살처분 하는 등 장기적인 수급불안으로 난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산란종계 및 산란실용계 병아리의 수입으로 부족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내내 지속된 강우로 과채류 가격이 급등하여 계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난가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4> 산란계 사육마리수 전망

(단위 : 만마리, %)

구분	6월	9월	12월	9월/6월	12월/9월
2011년(A)	6,072	6,227	6,157	2.6%	-1.1%
2010년(B)	6,159	6,010	6,169	-2.4%	2.6%
증감율(A/B)	-2.4%	3.6%	-0.2%		

자료 : 통계청(11년 9월, 12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표 4>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월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월보다 3.6% 증가한 6,227만 마리로 전망하였다. 이는 산란노계의 도태가 지연되고 있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란종계 입식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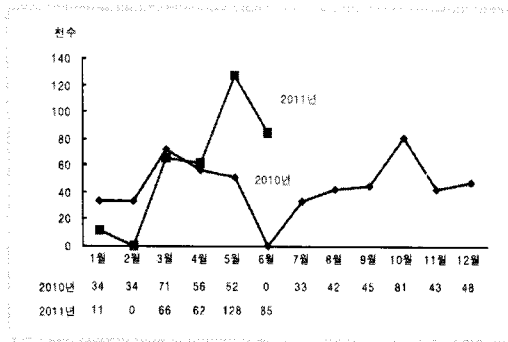
따라서 종란 생산동향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 병아리 부족현상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과잉공급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가정내 계란 평균 구매량은 4주 평균 37.3개로 전년대보다 3.5% 감소하였다. 이는 금년 상반기동안 계란 생산량 감소와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란 구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10월에는 계란 부족 현상이 완화되어 계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량은 전년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1~8월까지의 산란사료 생산누계는 1,331천톤으로 전년도 1,298천톤 보다 2.5%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한달간을 볼 때는 170천톤으로 2010년 8월의 생산량 150천톤 보다 13.3%나 크게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5>.

<그림 2> 산란종계 입식동향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 5>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연황

(단위 : 천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계
2011년	181	155	174	168	172	163	149	170					
2010	169	156	175	169	166	155	157	150	162	166	171	184	1,980
2009	164	145	168	165	158	156	147	157	173	160	162	181	1,944
2008	176	170	162	170	149	146	148	139	157	165	152	178	1,911

자료 : 대한양계협회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반기 산란종계의 입식증가 및 계란가격의 상승에 의한 노계도태 지연 등으로 하반기 산란계사육 마리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란사료 생산량의 증가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료 원료가격 동향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업계는 환율상승으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월초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이었으나 10월 현재 1,180원으로 두달만에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상황을 볼 때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하반기 국제 옥수수 가격은 미국 콘벨트 지역의 고온건조 기후에 따른 작황 우려 및 기말재고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이미 구매가 확정된 2011년 11월 도착예정인 미산 옥수수가 C&F 360달러/톤을 상회하는 등 년초의 270달러에 비해 30% 이상 가격이 상승된데다 환율마저 급등하여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의한 투기적 매수포지션의 청산 등으로 상품가격의 하락 및 유가하락이 이어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옥수수의 작황피해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내년 2~3월 도착예정인 미산 옥수수가 톤당 C&F 320달러를 보이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대두박의 국제가격 역시 옥수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10월 사용중인 남미산 대두박이 톤당 C&F 430달러로 년초의 340달러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나 내년 2~3월 도착예정 대두박 가격은 410달러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의 미국의회 비준에 따라 축산업 피해는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현행 20%인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경우 수입량의 증가로 닭고기 자급율은 현재의 87%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 축산물과 경쟁을 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가, 사료회사 및 관련업계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